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제61호 【루계 제27031호】 주체110(2021)년 3월 2일 (화요일)

사 설

애국의 마음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우리 나라에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가 타오른 뜻깊은 그날로부터 일흔다섯번째의 년륜이 아로새겨지고있다.

해마다 맞는 식수절이지만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과 전진의 실천강령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총궐기해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더욱 의의있는 날로 된다.

지금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며 자기 단위, 자기 고향마을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여야 합니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부이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다.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잘하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뿐아니라 래일 그리고 먼 앞날에 가서도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할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나무를 많이 심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여 조국강산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정치적사업이다.

푸르러 설레이는 조국의 숲, 한그루한그루 나무에도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로고가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35(1946)년 3월 2일 모란봉에 오르시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상처입은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며 나무를 많이 심어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고 나무가 얼마 없는 산들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여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오늘 이 땅에서는 변혁의 새 력사가 창조되고있다.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애국적열의와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면적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였다.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이라고 할수 있는 양묘장들이 도처에 훌륭히 꾸려지고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나무모생산능력이 크게 확장되였다. 심은 나무의 사름률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전국적인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가 확립되는 등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되였다.

산림복구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힘찬 진군보폭을 내짚으며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더해주고있다.

이미 거둔 성과는 더 큰 승리를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앞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전투목표들은 지금까지 해놓은것에 못지 않게 방대하다고 할수 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한시도 미룰수도 중단할수도 없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푸른 숲 설레이는 만복의 터전,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일념 안고 올해 봄철나무심기에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산림복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는 재해성기상현상에 의한 피해를 적지 않게 입고있다. 자연재해복구에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가 소모되여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발전이 지장을 받고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막는데서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여기서 봄철나무심기가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할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하며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인 산림복구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와 애국열을 최대로 분출시켜 봄철나무심기를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산림복구사업에서 뚜렷하고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봄철나무심기에 순결한 애국의 땀을 바쳐야 한다.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김정일애국주의야말로 우리 인민을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자양분이며 인민들의 꿈과 리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것입니다.》

온 나라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가슴깊이 새기고 자기가 심는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에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땀을 바쳐야 한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쓸모있게 산을 가꾸어 후대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말그대로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누구나 산림복구전투장이 자신들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검열받는 마당임을 자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활짝 꽃피우려는 불같은 맹세로 심장을 끓이며 봄철나무심기에 뼈심을 들여야 한다.

올해 봄철나무심기에서 수종이 좋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나무들을 많이 심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현시기 산림복구는 단순히 모든 산들을 푸르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지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몸소 보아주시고 이름지어주신 《금야흑송》을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으며 밤나무, 잣나무, 단나무와 같은 산열매나무림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봄철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과학기술학습, 경험토론, 보여주기 등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는것과 함께 단위별나무심기경쟁을 벌리고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짜고들어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나라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이고 경제보호사업이다. 나무심기를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산림보호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시해야 할 사업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자기의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누구나 높은 공민적자각과 준법의식을 지니고 산림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산림침해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 땔나무림조성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산불감시와 병해충예찰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산불이 나면 제때에 끌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기술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각급 산림복구전투지휘부에서는 구체적실태와 지대적특성,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나무심기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하여야 한다. 나무모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단위들에 산림조성계획과 산림담당구역을 정확히 주고 담당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총화평가를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이자 곧 그 지역, 그 단위의 산림복구전투실적이다. 일군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사업에 떨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산림복구전투장마다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구호와 표어, 선전화 등을 게시하여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 방송선전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당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대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나무심기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맞게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비상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사소한 비정상적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푸른 숲에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활력에 넘친 모습이 어리고 우리 후대들의 밝은 웃음이 깃든다.

모두다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부터 산림복구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을 안아오자.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로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소식

2월인민경제계획 완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투쟁할 때 나라의 국력은 배가될것이며 인민들의 꿈과 리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것입니다.》

온 나라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금속공업부문을 경제건설의 1211고지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강철전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 펄펄 끓이며 2월에 수행하여야 할 선철, 강철, 압연강재를 비롯한 중요현물지표별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속공업성에서는 당의 크나큰 믿음에 실천적성과로 보답하려는 각지 강철전사들의 불같은 열의가 그대로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성일군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토대의 정비보강과 철강재생산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게 사업계획과 임무분담안을 혁신적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기어이 수행할 불같은 일념 안고 2월의 날과 날을 파감한 투쟁으로 맞고보내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생산에서 걸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선철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산소분리기분공장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 설비보수를 질적으로 하여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함으로써 산소열법용량로의 가동률을 높이고 쇠물생산량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설비들의 예방보수, 업간점검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쇠물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생산토대의 정비보강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철강재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보산제철소의 로동계급은 회전로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맡겨진 삼화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굴지의 대야금기지와 화학공장들, 수천척지하막장 등 그 어느 일터에서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우리 로동계급의 앙양된 기세를 느낄수 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을 지켜선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맡겨진 2월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긴 화학공업성의 일군들은 더욱더 각성분발하여 경제작전과 지휘를 현실성있게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로운 생산공정건설과 개건현대화공사를 추진하는 속에서도 맡겨진 현행생산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일으켰다.

이들은 설비들에 대한 예방보수를 실속있게 하고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도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 비료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직장들사이, 공정들사이의 련계를 긴밀히 하고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함으로써 맡겨진 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도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가성소다를 비롯한 여러 지표의 화학제품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여러 화학공장에서도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2월전투목표를 수행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석탄생산을 늘이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탄광들 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모든 단위에서 뚜렷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탐사와 굴진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일군들은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공무기지강화에 큰 힘을 넣으면서 막장들에서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또한 탄부들의 로동조건,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도 응당한 힘을 넣어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석탄증산에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득장, 개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여러 탄광들에서는 막장마다에서 힘찬 돌격전을 벌려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자신들이 매일매일 기록해가는 생산실적이 곧 5개년계획수행에로 이어진다는것을 명심한 탄부들은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굴진성과를 확대하면서 교대당 실적을 끌어올리였다.

강동, 함남, 온성, 명천,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도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며 힘차게 전진하였다.

림업부문에서

림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올해투쟁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으로 힘찬 투쟁을 벌려 2월계획을 완수하였다.

림업성과 각 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은 륜전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통나무생산을 늘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가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그를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적지 않은 자재들이 부족한 조건에서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한편 운반능력을 높일수 있는 수단들도 적극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림으로써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기세드높이 림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채벌장마다에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생산의 큰 몫을 담당한 자강도, 량강도림업관리국의 로동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량강도림업관리국에서는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부족되는 자재와 연료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따라세움으로써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여러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나무베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운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통나무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의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기계톱을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강원도, 평안남도,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도 겨울철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실적을 올리였다.

본사기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받들어 조국강산을 후대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산천을

75년전의 그 사연 전하며

모란봉의 숲은 설레인다

조국강산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훈향이 겨울잠을 깨쳤는가 벌써부터 아지마다에 새싹들을 뾰족뾰족 내미는 나무들도 보인다.

겨우내 덮여있던 얼음장밑에서 소리없이 흘러내리던 실개천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유정한 소리를 한껏 터치며 산촌의 정적을 깨친다.

사람들 누구나의 가슴마다에 봄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봄물마냥 차오르는 이 시각 우리의 추억은 75년전 3월의 잊지 못할 그날에로 끝없이 달린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찾아주신 내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모란봉에 력사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

사랑하는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품어안으시고 열과 정을 쏟아부으신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소소리높이 자란 이 땅의 나무들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어리여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1946년 3월 2일 모란봉에 오르시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상처입은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며 나무를 많이 심어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새길수록 못 잊을 추억의 갈피가 더듬어진다.

예로부터 푸른 숲이 우거지고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게 피여나 경치좋은 곳으로 그 이름 널리 알려진 모란봉,

간고했던 항일의 나날 밀림의 우등불가에서 대원들과 함께 그려보시던 모란봉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의 감회는 참으로 깊으시였다.

하지만 해방이 되여 첫봄을 맞이한 모란봉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은 점차 흐려지시였다.

명승지로 이름높던 모란봉이였건만 자기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던것이다. 황폐화된 모란봉은 말그대로 일제에게 짓밟혀 빛을 잃은 내 조국의 축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옛날에는 모란봉에 나무가 많았다고, 왜놈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모란봉의 나무를 란벌하였다고 격분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가슴이 아프신듯 길녘에 듬성듬성 서있는 버드나무를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다 못해 모란봉과 같은 조국의 명승지들까지 못쓰게 만든 일제에 대한 증오가 불타올랐다.

해방된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뒤덮게 하실 구상을 무르익히시는듯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산등성이를 따라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모란봉에 나무도 많이 심고 꽃들도 많이 심어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후대들에게 풍만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넘겨줄뿐아니라 수재와 한재를 영원히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나라의 모든 산들에 푸른 숲 설레이게 하기 위한 위대한 전변의 력사는 이렇듯 우리 수령님의 열렬한 애국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그로부터 한해가 지난 주체36(1947)년 4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무를 심기 위하여 문수봉에 나오시였다.

문수봉과 그 주변의 야산들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 달려온 시안의 근로자들로 붐비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나무를 심으시기 위하여 나오시였소!》

누군가가 웨치는 소리에 사람들 속에서 터져오른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은 온 문수봉 골안을 진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오늘의 식수사업을 하나의 단순한 행사로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하고있는 이 식수사업은 악독한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주수도를 록음이 우거지게 만들기 위한 보람찬 자연개조사업의 하나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나무심을 장소에 이르시여 애어린 나무를 정성껏 심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변까지 정리하고서야 허리를 펴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마실 물을 떠가지고와서 어버이수령님께 잠간 쉬실것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몇대 더 심고 쉬자고, 이렇게 심어서야 언제 조국의 산들을 다 푸른 동산으로 만들겠는가고, 계속 더 심자고 하시며 일군에게서 받으신 물을 방금 심으신 나무에 부어주시고 계속 일손을 다그치시였다.

력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휴식시간에 팡범한 대중이 떨쳐나서 한 10년동안 계속 산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벌거숭이산들은 다 없어질것이며 온 나라의 산들에 수림이 우거지게 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닦아질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산림을 애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애국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문제이라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부강한 새 조국건설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며 산림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가 어찌 문수봉에만 깃들어있다고 하랴.

새 조국건설시기 산이 많은탓에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하는 산골농민들에게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며 모든 산을 황금산으로 만들라고 가르쳐주시던 양덕군 은하리 구지골의 못 잊을 사연, 전화의 나날 나라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고 전선에서 몇천명이나 한꺼번에 소환하여 산림보호원(당시)으로 보내주도록 하신 사실…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는 조국의 번영을 담보하는 귀중한 재부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찾으시는 단위, 고장마다에서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할데 대하여 그토록 간곡히 가르치신것이다.

대지에 뿌리내린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정녕 무심히 대할수가 없다. 바로 거기에 우리 조국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며 드림없는 의지이다.

모든 산들을 아름답고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될 이 땅의 래일을 그려보며 누구나가 심장의 목소리를 터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국강산은 거창한 전변의 력사를 아로새기며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끝없이 빛을 뿌릴것이라고.

본사기자 림 정 호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후대들에게 수림이 우거지고 백화만발한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푸른 산, 푸른 들,

이는 아름답고 풍요한 사회주의조국강산에 대한 선명한 표상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려보신 우리 조국의 풍경, 그것은 산은 산마다 황금산, 보물산을 이루고 들에는 들마다 우리 손으로 가꾼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주렁지며 록음에 묻힌 일터들에 사회주의의 청신한 숨결과 향기가 넘쳐흐르는 인민의 무릉도원이였다.

어느해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헤치시며 평안북도의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가 평북태지공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앞마당에 이르러 서서히 멈춰섰다.

전망대에 오르시여 푸른 숲에 싸여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공장쪽을 바라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안광에 기쁨의 미소가 어리였다.

잣나무와 이깔나무를 비롯하여 갖가지 나무들이 푸르싱싱 자라고 있는 주변풍치를 부감하시던 그이께서는 조용히 외우시였다.

푸른 산, 푸른 들!

우리 장군님께서 하나의 시어와도 같이 외우신 이 말씀에는 조국의 산과 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고 온갖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지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가 어리여있었다.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들이 푸른 산, 푸른 들에 어리여있는것인가.

전화의 나날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심으신 애어린 잣나무가 이제는 장자산의 울창한 숲과 더불어 하늘높이 솟아 설레이고있다.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는 장산에 오르시여 전쟁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린 자그마한 애솔포기에도 조국애의 고귀한 넋을 담으시였고 또 언제인가는 저택정원에서 몸소 떠가지고오신 세그루의 향나무를 유서깊은 칠골혁명사적지에 심으신 감동깊은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 나라의 푸른 산, 푸른 들에 새겨진 하많은 사연들을 어이 다 전할수 있으랴.

소나무의 푸르름은 눈서리속에서 더욱 빛이 나고 애국의 진가는 시련속에서 검증된다.

나라가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 우리 장군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신 선군길은 마음속에 푸른 숲을 안고 걸으신 애국의 장정이기도 하였다.

어느해에는 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였고 병사들의 애국심이 깃든 감나무중대를 찾으시여서는 그토록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위대한 장군님,

주체86(1997)년 9월 어느날 군인건설자들이 건설한 구월산유원지를 돌아보실 때에도 유원지의 나무 한그루마다에 뜨겁게 슴배여있는 병사들의 깨끗한 마음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며 하신 그이의 말씀이 지금도 내 조국의 푸른 숲의 설레임에 실리여 큰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앞으로 나무심기운동을 잘 벌리면 후대들에게 수림으로 울창한 조국을 물려줄수 있다고 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무심는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몸소 나무를 심으시는 실천적모범도 보여주신분,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붙이처럼 여기시며 그처럼 바쁘신 전선시찰의 길에서도 좋은 나무모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였으면 어느해인가는 봄철이 되여 돋아나기 시작하는 나무의 순을 손수 뽑으로 재여보시며 벌써 많이 자랐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으랴.

그뿐이 아니다.

어느해 한 기초식품공장을 돌아보시던 그날 공장의 나무들에 지성을 바쳐가는 이곳 로동계급의 정신세계가 그리도 소중하시여 구내를 두번이나 거니시며 못내 기뻐하신 사연, 어느 한 군의 산림경영소를 찾으시고 산림실태와 나무모생산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며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살아온 삼천리금수강산을 우리 세대에 와서 더 잘 보호하고 더 잘 꾸려 풍치수려하고 여러가지 열매들이 주렁지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신 간곡한 당부…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숭고한 인생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후대들에게 수림이 우거지고 백화만발한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시기 위해 온넋을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력사를.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다. 내 조국의 산마다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이였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뜻을 받들어 모두다 조국의 무궁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숲을 더 무성하게 가꾸어가자.

본사기자 김 성 남

사연깊은 두그루 나무앞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파외교양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4월15일소년백화원에 들어서면 누구나 먼저 찾는 두그루의 나무가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심으신 잣나무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함께 심으신 분홍꽃아카시아나무이다.

소소리높이 자란 거목의 가지마다에 푸른 잎새를 한껏 펴인 잣나무와 금시라도 새싹이 움터나는 소리가 들려올것만 같은 분홍꽃아카시아나무를 바라볼수록 못 잊을 추억이 감회깊이 돌이켜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생토록 국토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조국산천을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주체80(1991)년 4월 13일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월15일 소년백화원을 찾으시였다.

봄향기 짙은 4월의 백화원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또 하나의 재부를 마련해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어려온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궁번영할 우리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몸소 삽을 드시고 나무를 심으시였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나누시던 말씀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교시가 영원한 메아리가 되여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

조국의 산과 들에 나무를 많이 심는것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후대들에게 풍만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넘겨주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다.

잊지 못할 그 봄날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심으신 두그루 나무,

아마도 그 설레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날의 고귀한 가르치심과 숭고한 애국의 뜻을 전하는 유정한 속삭임이런듯.

높이 자란 두그루 나무앞에 서니 생각은 더욱 깊어진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우리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산림복구전투를 최대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로고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의 손길아래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타번지는 산림복구전투의 불길속에 년년이 푸르러가는 내 조국강산이 아니던가.

오늘도 사연깊은 두그루 나무는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에게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은 활짝 꽃펴나고 우리 조국의 모든 산들은 푸른 숲 우거진 아름답고 풍요한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될것이라고 끝없이 속삭이는것만 같다.

글 본사기자 김 일 권
사진 리 강 혁

불 같은 애국의 호소

내 조국땅 어디 가나 드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푸른 숲을 가꾸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조국의 산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하루빨리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산림부문의 일군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려는 일념으로 가슴을 끓이며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이렇듯 애국으로 불타는 심장들에 식을줄 모르는 열을 주고 힘찬 박동을 주는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이곳을 찾으시여 중앙양묘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푸른 숲 설레일 조국의 래일을 보는것만 같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안겨온다고, 우리 장군님은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뜨겁게 뇌이시였다. 그러시고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벌거벗은 산들을 보신것을 너무도 안타까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떠오른다고,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한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나라의 산림문제를 놓고는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면 전후 전쟁 인민이 떨쳐나서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산림복구전투를 벌려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 이듬해 2월 26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하시여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였다.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산림복구전투는 자연과의 전쟁이라고 선언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의 뜨거운 호소는 천만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온 나라를 산림복구전투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켰다.

얼마나 격동적인 날과 달이 흘렀던가. 그 나날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중앙과 지방의 크고작은 양묘장들이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강력한 병기창으로 꾸려지고 온 나라에 산림복구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것 아니던가.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전투의 순간순간을 고결한 충성과 위훈으로 빛내인 인민군장병들의 헌신적투쟁,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키운 나무모들을 산들에 옮겨심고 애지중지 가꾸어온 인민의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열의…

천만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은 오늘 더욱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이고 조국의 미래,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조국산천을 푸르게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이 끝없는 메아리를 일으키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을 울려주고 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뜨겁게 굽이치는 애국의 숨결과 더불어 날로 푸르러가는 조국의 산과 들이 말해주는 진리가 있다.

푸른 숲을 가꾸는데 바친 오늘의 순간순간은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 후대들이 누리는 행복속에 영원하다고.

본사기자

유정한 뻐꾹새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면서 부대주변을 알뜰히 꾸리고 수림화한것을 보실 때 제일 기뻐하시였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감회깊이 되새겨진다.

주체93(2004)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부대의 진지들을 돌아보시며 싸움준비상태를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주변산들에 시선을 보내시며 밝은 안색을 지으시였다.

부대가 자리잡고있는 산과 골안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었다. 그래서인지 대기마저 청신하기 그지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야말로 나무천지라고, 부대병영구내는 물론 모든 산들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고 가꾼 부대는 처음 본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부대에서 자체로 꾸려놓은 양묘장을 돌아보시면서 살구나무가 많다고, 참 보기 좋다고 무척 기뻐하시였다.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부대의 한 일군이 이곳에는 살구나무뿐아니라 추리나무, 복숭아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들도 많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해마다 과일들을 많이 따겠는데 군인들에게 먹이는가고 물으시였다.

군인들에게 과일을 많이 먹이고 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구역이 수림화된데다가 군인들에게 갖가지 과일까지 많이 먹이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바로 이때였다.

《뻐꾹, 뻐꾹, 뻑뻐꾹…》

마치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셨다고 알리기라도 하려는듯 이산저산에서 서로 찾고 화답하는 뻐꾹새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뻐꾹새소리가 유정하다고 하시며 무성하게 자란 푸른 숲을 한동안 정깊게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면서 산림이 울창하니 뻐꾹새를 비롯한 온갖 새들이 다 찾아오고있다고, 자신께서는 뻐꾹새소리를 고난의 행군이후 여기에 와서 처음 듣는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찌릿해졌다.

우리 조국이 모진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 시기 헐벗은 산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며 조국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실 의지를 굳히신 우리 장군님,

그이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푸른 숲이 무성할 아름다운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얼마나 많은 애국의 땀방울을 바쳤던가.

일군들은 유정한 뻐꾹새소리가 불같은 애국의지를 안으시고 이 땅 가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치시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전하는것만 같아 눈굽이 뜨거워올랐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 뻐꾹새소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는 좋은 징조라고 볼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마냥 부풀어올랐다.

안 향 경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자

애 국 심 을 검 증 받 자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서 판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는 산림복구전투의 로정을 계속 힘차게 이어가야 할 책임적인 임무가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사람들의 애국심을 검열하는 마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애국주의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며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꿀때 자라나게 된다.

엄혹한 자연속에서 어린 나무모를 심어 거목으로 자래워야 하는 산림복구전투는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 자연과의 전쟁이다.

단순한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는 장기성을 띠는 산림복구의 방대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없다.

전체 인민이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더욱 부강할 래일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수 있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며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이다.

다음세대를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진정한 애국자들만이 산림복구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다.

최근년간 산림복구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푸른 숲을 늘이고 인민생활에도 적지 않은 보탬을 주고있는 단위들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림의 덕을 대대로 보면서 남부러운것 없이 잘사는 고장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산림조성방안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하나하나 알심있게 실천해나가고있다.

대를 이어가면서 덕을 볼수 있게 산림을 조성하는것, 이것이 최근년간 산림복구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고있는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산림복구사업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회창군을 보자.

현재 이 군의 산들에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이깔나무와 밤나무, 잣나무, 수유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다.

결코 남들보다 조건이 좋거나 한두해사이에 마련된 결실이 아니다. 조건으로 본다면 거의나 돌산이고 토심도 깊지 못하던 산들이였다. 하지만 다음세대를 위하여 자신들을 깡그리 바칠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안고 온 군이 떨쳐나 해를 이어가면서 꾸준하게 산을 가꾸어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하였다.

태천군과 회령시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이 단위들의 산림복구실적은 해마다 오르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해 산들에 기름밤나무와 돌배나무, 단나무 등을 높은 사름률을 보장할수 있게 정성껏 심고 비배관리도 책임적으로 하였는데 그 면적은 적지 않다. 잣접림면적도 부쩍 늘이고 많은 품이 드는 사방야계공사도 훌륭히 해제끼면서 모든 산들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실지로 이바지하는 보물산으로 꾸려나갔다.

높아가는 산림복구실적의 밑바탕에는 자기는 비록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바치려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철한 각오와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깔려있다.

조국과 인민, 후대들에게 애국심을 검증받겠다는 자각을 안고 높은 책임성과 꾸준한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자기 지역의 모든 산들을 실지 쓸모있는 황금산으로, 자연원료기지로 전변시킬수 있다.

진정한 애국자는 산기슭의 애솔나무 한그루에도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조국의 산들에 펼쳐지는 울창한 수림들에는 애국자들의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땀이 슴배여있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진정을 바쳐나갈 때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될 그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모든 산을 후대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먼 후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그 어떤 명예나 대가도 바람이 없이 다음세대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고 량심적으로 총화할수 있게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온넋을 쏟아붓는다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변혁적성과를 이룩하는것으로 자기의 애국심을 검증받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충 일

나무모생산조건을 면밀히 따져가며

국 토 환 경 보 호 성 중 앙 양 묘 장 에 서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나무모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스트로브스소나무를 비롯한 좋은 수종의 나무모들을 전국의 많은 단위들에 보장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의 나무모생산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전개하여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쉽게 마련된 결실이 아니다.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나무모생산의 모든 공정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해온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야외재배장에 대한 토량보충사업을 파감하게 전개하여 올해의 나무모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당 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지난 시기 나무모생산에서의 편향들을 분석총화하는 과정에 일군들은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흙이 뿌리를 감싸재로 나무모를 뜨는 조건에서 야외재배장에 흙을 제대로 보충해주지 못한다면 생산에 후과를 미칠수 있다는 점이였다.

초보적으로 타산해보아도 그 량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군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는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야 한다는 자각으로 이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하였다.

흙원천을 찾아내는것이 급선무로 나섰다.

일군들은 신발창이 닳도록 주변의 곳곳을 답사하였다. 그리하여 양묘장과 가까운 주변의 물길바닥에서 흙원천을 찾아내였다. 굴착기와 화물자동차들이 흙운반에 지체없이 동원되였다. 불과 며칠동안에 2 000여㎥의 흙을 야외재배장과 가까운 곳에 쌓아놓을수 있었다.

흙이 확보되자 일군들은 그것을 야외재배장에 펴기 위한 사업을 시급히 조직하였다.

이 작업 역시 말처럼 쉽지 않았다. 흙이 돌덩이처럼 얼어붙은데다 날씨가 차고 바람까지 세게 불어 작업조건은 불리하였다.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정치사업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단위별로 작업과제를 주고 사회주의경쟁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양묘장의 종업원들은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일념 안고 맡겨진 작업과제수행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작업장의 분위기는 날을 따라 고조되였다. 성과가 커갈수록 일군들은 현장정치사업을 더욱 박력있게 벌리고 종업원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마침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20일 남짓한 기간에 야외재배장에 충분한 량의 흙을 펴주어 나무모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야외재배장에 실어내고 수백㎥의 기질혼합과 운반작업도 결속하였다.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시켜나갔다. 뿌리내림촉진제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확보한데 이어 생산준비사업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서 판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보장할 열의밀에 계속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송 창 윤

수천만그루의 나무모 마련

함 경 북 도 에 서

함경북도에서 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도에서는 잣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수천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한데 이어 영양관리에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포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면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릴수 없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생산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양묘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였다.

도산림관리국에서는 시, 군들의 산림실태와 지대적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단계별목표를 과학적으로 세우고 나무모생산을 늘이도록 떠밀어주었다.

도양묘장과 시, 군산림경영소들에서 수종이 좋은 종자를 확보하고 생육상태를 개선하는데 주목을 돌려 나무모생산을 늘이였다.

도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수유나무와 잣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충실하게 키워냈다. 이들은 선진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짜고들어 나무모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현지에 자주 나와 기질확보와 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었다.

수종이 좋은 나무모종자를 충분히 확보한 회령시산림경영소에서는 유기질비료와 부식토를 많이 내고 생육조건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근 500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김책시산림경영소에서도 앞선 나무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덧거름주기, 김매기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다른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지역안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일념 안고 나무모생산에서 실적을 올리였다.

지금 도에서는 나무모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짜고들면서 봄철나무심기준비를 예견성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 혁 철

모든것이 우리의 노력과 결심에 달려있다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최근년간 도의 산림복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적지 않다. 현대적인 도양묘장이 일떠서고 시, 군모체양묘장들에서의 나무모생산도 부쩍 늘었다. 또한 덕천시와 북창군을 비롯하여 10여개의 시, 군들에서는 이미 산림조성 10년전망계획에 반영된 나무심기과제를 끝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당면하여 올해의 봄철나무심기를 혁신적인 안목과 똑똑한 책략을 가지고 전개하겠다.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것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립장에서 작전도, 설계도인 계획부터 혁신적으로 실속있게 세우겠다.

부문별, 단위별로 경영목적을 따져가면서 수종별에 이르기까지 보다 구체화, 수자화하여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

나무심기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더 좋은 결실을 볼수 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나무심기방법들과 각종 영양제를 적극 도입하여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겠다.

대 담 하 게 진 취 적 으 로

일군들의 능력과 역할에 한개 단위, 한개 부문의 운명이 달려있다.

올해 산림조성작전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였다.

사실 지난해 시의 산림복구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뜻에 비해볼 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지난 시기 날씨가 추운 지대적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일면적인 생각만을 하다보니 산열매나무심기에서 눈에 뜨이는 전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우리는 도식과 경직, 구태의연한 일본새와 결별하고 새 출발할것을 결심하였다.

산림부문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으면서 단나무, 새 품종의 비타민나무 그리고 종전에 이 고장에서는 자래우기 어려운것으로 여기였던 밤나무도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많이 심어 보장할수 있게 하겠다.

현재 대흥군과 신양군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들에는 나무를 심어야 할 면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도안의 강력한 력량을 이런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기동성있게 배치하여 올해중에 벌거벗은 산들에 대한 나무심기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겠다.

그리하여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서 판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산림복구사업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겠다.

평안남도산림관리국 국장 로 철 룡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였다. 이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나무모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로부터 우리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매우 긴장한 분분초초를 이어가고있다. 특히 겨울난 나무모의 영양상태개선과 산지에 옮겨심을 나무모의 사름률보장에서 제기될수 있는 기술적문제해결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우리 군에서 나무를 심어야 할 면적은 적지 않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것이 혈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일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많은 량의 합격품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나무모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군안의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회양군산림경영소 지배인 김 광 룡

산열매나무림조성을 전망성있게

태탄군에서 산열매나무림조성에 힘을 넣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군일군들은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산열매나무림을 잘 조성할 목표밑에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은 장기성을 띠는 사업인것만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군일군들이 산열매나무림조성사업을 조직하면서 모를 박은 문제가 있다.

지대적특성과 실리를 따져가며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종을 더 보충하여 산열매나무심기를 드세게 내미는것이였다.

군에서는 몇해전부터 산열매나무심기에 많은 품을 들여왔다. 나무모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해마다 생산을 늘여 잣나무림면적을 넓히였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산열매나무는 나무모생산을 따라세우지 못하였기때문에 많이 심을수 없었다.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군일군들은 산열매나무림을 전망성있게 조성할 목표를 세웠으며 나무심기를 그 어느때보다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내밀기 위한 대책들을 탐구하였다.

이들은 자기 고장의 기후와 토양조건에서 잘 자라는 수종의 산열매나무림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 밤나무, 가래나무, 돌배나무 등을 심는 문제에 이목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나무모생산을 앞세울수 있는 혁신적인 안들도 내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군에서는 산림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단계별나무심기계획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수종별로 산열매나무림을 조성할 산림구역을 확정하고 필요한 나무모를 군산림경영소에서 전적으로 맡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군산림경영소에서는 효과적인 접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품을 넣었다.

우선 높은 열매생산성을 담보하는데 중심을 두고 접가지를 채취하는 사업을 예견성있게 조직하였다. 일군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없이 잘 자란 나무의 가지들을 선정하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종업원들이 접가지채취와 관련한 기술적요구를 꿰들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채취한 접가지들을 잘 보관하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나무모저장고를 손색없이 꾸리고 온도와 습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웠다. 그리고 접가지를 채취하는족족 그날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군에서는 산림구역의 곳곳에서 몇해동안 자란 여러 수종의 산열매나무들을 떠서 해당 조성구역에 옮겨심으면서 빈자리를 없애는 사업도 구체적인 계획밑에 조직하였다.

본사기자 정 영 철

산 림 보 호 사 업 을 강화하는데서 틀어쥘 고리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동림군산림경영소 일군들이 산림보호사업을 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쥐고 실천하고있다.

지난 시기 산림보호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에서 교훈을 찾은 일군들은 산림감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기로 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모든 산림감독원들이 산사태와 산불, 병충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이끌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는 사실을 놓고보자.

일군들은 산림감독원들이 현지를 빠짐없이 밟아보면서 산사태가 일어날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히 장악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산사태방지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사방야계작업소 종업원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기슭막이와 흙막이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공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막돌확보사업을 선행시키면서 어느 한 지구의 기슭막이공사를 계획대로 내밀게 하였다.

일군들은 산불막이선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리하는 사업에서도 산림감독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산림감독원들이 분발해나섰다. 특히 산성리지구의 산림감독원들이 앞장섰다.

남삼리지구의 산림감독원들은 여러가지 일로 바쁜 속에서도 곳곳에 표어를 붙여놓고 주민들모두가 산림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처하여 군중동원체계를 더욱 완비하였다.

다른 지구의 산림감독원들도 산불 및 병충해막이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나갔다.

본사기자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나무모생산기지들

과학적인 작전과 강한 집행력으로 단위발전을 적극 추동하자

하루하루를 뚜렷한 실적으로 이어가자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하는 지금 우리 일군들이 사활적인 것으로 접수해야 할 시대적요구가 있다.

오늘의 하루하루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운명을 걸고 맡겨진 계획을 매일매일 드림없이 수행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현행계획과 전망적인 단계별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완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중점과제들이 제시되고 그 실현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특히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다. 그런것만큼 일단 맡겨진 계획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흥정할 권리가 없으며 무조건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여야 할 오늘의 하루하루는 지난 시기의 하루하루와 대비할수 없는 무게를 가진다.

물론 경제사업에서의 뚜렷한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 부문과 단위앞에 맡겨진 계획을 드림없이 완수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한해의 실적에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담보할수 있다.

올해목표달성을 위한 투쟁은 위대한 우리 당의 권위보위전이다. 올해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앞에 나선 과업은 단순한 경제건설목표이기 전에 목숨보다 귀중한 당결정이다. 참으로 판건적인 오늘의 하루하루에 만약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계획수행을 드티게 된다면 자기 부문과 단위가 주저앉게 되고 경제발전속도가 더디여지며 우리 당의 경제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울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당에 대한 충성을 하루하루의 실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시기, 매일매일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결사적인 투쟁으로 당의 권위를 보위하여야 할 때이다.

일군들이 자기 부문과 단위의 운명을 걸머지고 높은 책임성과 분발력을 발휘할 때 계획수행과 생산토대강화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룩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부문과 단위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는것이다.

운명을 건다는 말은 결코 형상적인 표현이나 토론용어가 아니다. 당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행로에는 빈틈없이 맞물려진 하루하루의 시간표가 있다. 그 길에서 전진이 없이 답보하는 하루, 조건이 불리하여 어쩔수 없이 물러서는 하루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당이 가리킨 새 승리의 길로 끗끗이 나아갈 철석의 맹세, 조국과 인민이 기대어린 눈빛으로 지켜본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일군들부터가 결사분투하여야 단위가 전진하고 부문에 활력이 넘치게 되며 경제전선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일군들이 일정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는것이다.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올해목표가 명백히 확정된 조건에서 전투계획을 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빈틈없이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지금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나 현행생산을 힘있게 내미는 동시에 멀리 앞을 내다보며 생산토대도 정비보강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하루하루의 계획을 소극성과 보신주의, 주관적욕망과 허풍이 발붙일 틈이 없도록 치밀하게 세워야 한달, 한해의 전투목표를 실속있게 집행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을수록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태에 대한 깊은 연구와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설비보수와 갱신, 원료와 자재공급, 기술준비 등 모든 고리가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할 때 맡겨진 계획을 일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또한 생산총화를 방법론있게 짜고드는것이다.

빈틈없는 작전도 실속있고 엄격한 총화가 따라서야 훌륭한 결실로 이어질수 있다.

지금 물질기술적토대강화에 큰 힘을 넣는 속에서도 생산을 일정계획대로 내미는 금속, 화학, 석탄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를 놓고보면 한가지 공통적인것이 있다. 생산총화를 성과에서는 경험을, 결함에서는 교훈을 찾으며 나타난 편향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취하는 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점이다.

생산과정에 나타난 부족점을 놓고 추궁이나 하고 일반적인 강조나 하는것은 결코 총화가 아니다. 그런 총화는 열번, 백번을 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시간랑비로 된다. 경험은 확대하고 편향은 극복하면서 부단히 전진속도를 높여나가자면 실속있는 생산총화를 따라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늘 현장에서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며 제기되는 문제들과 변화되는 정황을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여야 한다. 하루사업을 총화하면서 오늘 잘한것은 무엇이며 잘못된것은 무엇인가, 래일 더 잘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모두가 명확히 인식하고 새롭게 분발하도록 총화방법을 부단히 혁신해나갈 때 올해목표수행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

경제부문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적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것이다.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불사르고 5개년계획수행에서 일대 혁신을!

창발성과 실천력이 결합될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변천하는 현실을 감수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데서 창발성은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의 하나이다.

자기 단위의 현 실태와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출로를 창발적으로 탐구하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창조와 혁신이 이룩된다.

그러나 일군들이 현실에 무감각하고 도식과 경직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루살이식, 땜때기식일본새밖에 나올것이 없다. 이런 부문과 단위가 현상유지는 고사하고 시대의 뒤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당대회결정관철로 들끓는 오늘 일군들의 창발성은 그 어느때보다 중시되고있다.

현실은 계획수행에나 만족하던 지난날의 근시안적인 사업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군들이 전략적안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창발적으로 일판을 전개하여야 경제사업에서 발전지향성과 력동성, 과학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어느 한 탄광의 실례가 있다.

지난해 이 탄광에서는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해 새 전차의 제작을 추진하였다. 당시 가까이에 있는 한 단위에서 먼저 능률적인 전차를 도입하였으므로 처음에는 그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일군들의 생각은 인차 달라졌다.

이 전차에는 적지 않은 량의 축전지가 리용되였다. 일군들은 보다 실리적인 견지에서 축전지를 쓰지 않는 새형의 전차를 만들기로 하였다. 도식적인 답습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만족할수 없었던것이다.

결국 이들은 비록 품은 들지만 나라에도 단위에도 다같이 리익이 되는 선택을 하였다.

일군들의 창발성은 해당 단위의 발전에서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착상이나 목표도 완강한 실천력이 따라서지 못하면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어렵고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오늘 그 어느 단위에나 난관은 존재한다. 더우기 새것의 창조과정에는 예상치 못했던 도전에 부닥치게 될수도 있다. 그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소중한 발기와 새로운 착상들이 응당한 결실을 맺게 하는데서 일군들의 완강한 실천력은 관건적인 의의를 가진다. 일군들의 창발성과 실천력이 옳게 결합되여야 해당 단위의 발전토대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것이다.

우에서 언급한 탄광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전차의 제작과정은 헐치 않았다. 탄광의 기술력량은 제한되여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름찼다. 이런 조건에서 일군들은 당정책의 요구대로 연구단위, 개발단위들과의 협동을 중시하였다. 교육기관과 제작단위들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기술적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결코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의거한것은 아니였다. 오랜 현장경험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새 전차의 제작을 주도해나갔다. 이 나날 해당 부문 전문가들과의 련계가 보다 긴밀해졌으며 제작원가를 낮추고 전차를 정상가동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기발한 착상들이 련이어 나왔다. 그 결과 어렵게만 여겨지던 새 전차의 제작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될수 있었다.

지금은 자신의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분투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창조형의 실력가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모든 일군들이 비상한 창발성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항상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돌진해나갈 때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부단히 혁신하는 유능한 지휘관이 될수 있다.

본사기자 심 학 철

말로써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한다

경공업공장들의 국산화, 재자원화정형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는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아무리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갖추어지고 기술력량이 그쯘한 단위라 할지라도 원료, 자재가 부족하면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다.

지금 경공업부문의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원료, 자재의 부족으로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을 원만히 만들어내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단위들가운데는 지난 시기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을 생산한것으로 하여 소문이 자자했던 어느 한 공장도 있다.

이 공장의 일군들은 말로는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실현에 힘을 넣겠다고 하였지만 실지 이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내밀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에 와서는 원료, 자재의 부족으로 생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있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오래동안 멎어있은 결과 운영에서도 여러가지 난문제가 제기되고있다.

현실은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사업을 사활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무슨 일이나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좋은 결실을 보기마련이다.

원산구두공장 일군들의 경험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신발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를 자기 지방의 공장, 기업소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실례로 신발생산에 쓰이는 장식금구는 원산철제일용품공장에서, 천은 원산직조공장에서 보장받기로 하였다.

현재 이 공장들에서는 신발생산에 쓰이는 매 자재들의 기술적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 기준에 부합되게 생산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는데서 기술자, 로동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최근 평양일용품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코스모스》머리빈침제작에 쓰이는 유기유리를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재리용하여 만듦으로써 제품원가를 훨씬 낮출수 있게 하였다. 이들은 어느 한 제품생산에 쓰이는 강모사도 우리의 자재를 리용하여 만들것을 결심하고 이악하게 노력함으로써 끝끝내 성공을 안아오고야말았다.

어느 생산단위에 가보나 《국산화》, 《재자원화》라는 글발을 볼수 있지만 실천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첫째도 둘째도 해당 단위 일군들의 역할에서의 차이이다. 당정책을 대하는 태도는 말로써가 아니라 결과로 나타난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은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무조건 관철함으로써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서 남 일

-평양화력발전소에서 주대혁 찍음-

원료확보를 앞세우는데서 중시할 문제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중시할 문제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기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의거하여 원료를 확보하는것이다. 최근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확보에 힘을 넣고있는 자강도일군들의 사업을 실례로 들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원료,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자강도는 산간지대여서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고 계절적조건도 불리한것으로 하여 원료예비를 마련하는데서 적지 않은 애로가 있다. 지난 시기 도안의 일부 시, 군에서는 자체로 원료를 확보할 궁리는 하지 않고 우에서 대주기만을 기다리는 편향도 없지 않았다.

외적요인에 구애됨이 없이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원료확보계획을 세워야 한다. 불리한 조건만을 따지면서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자각이 부족한 표현이다.

이런 관점밑에 도의 일군들은 자기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의거하여 원료예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우선 도자체로 기름생산원료예비를 마련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고풍군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여러 지역에서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해바라기를 많이 채취하여 식료품생산원료로 적극 리용하는것과 함께 간장, 된장생산에 필요한 원료확보도 일판하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산과일과 산열매, 산나물로 갖가지 식료품을 적지 않게 생산하게 되였으며 강계시와 만포시, 랑림군 등 각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생산과 공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도의 일군들은 이와 함께 수매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현재 수백t의 파지를 수집하여 학습장생산에 리용할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고있다.

도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비누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희천시와 송원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는 자체로 가성소다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물론 도적으로 확보된 원료량은 아직 인민들에게 갖가지 소비품을 풍족하게 보장해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자기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료확보사업을 방법론있게 꾸준히 내밀고있는 자강도일군들의 사업에는 본받을 점이 있다.

본사기자 조 광 송

진짜 부족한것은 무엇이였는가

사활적요구로 받아들이자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우리 앞에는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창조형의 공업에로 방향전환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여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는것은 기술자, 기능공력량을 강화하는것이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핵심적역할을 떠나서 기계공업의 발전을 생각할수 없다.

하지만 지난 시기 우리 성에서는 기술력량강화를 중핵적인 문제로 틀어쥐고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이 사업이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오늘에 와서는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력량의 부족을 느끼고있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성의 일군들부터가 현행생산에만 급급하면서 기술력량강화를 기계공업부문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지 못한데 있다.

성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새로 키우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을 따라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우대하며 모든 일군들이 기술력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일판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기계공업성 부상 김 정 철

대중발동의 묘술

예비부속품과 자재를 얼마나 확보하였는가. 이것은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시기 우리 광산에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풀지 못해 설비들을 종종 세우군 하였다. 그런 경우 일군들이 여기로 나섰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나타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우리는 이것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파철을 비롯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것을 사회주의경쟁의 중요한 평가세칙으로 정하고 총화와 해당한 평가사업을 따라세웠다.

이렇게 내부예비를 람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광산에서는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였으며 강뿔이나 용접봉을 비롯한 중요자재들도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게 되였다.

흥산광산 지배인 류 광 찬 은 답

기쁨도 컸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책도 많았다.

우리가 공장을 추켜세우는데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좀더 일찌기 분발해나섰다면 이미 해결하고도 남았을 일이였기때문이다.

하기에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을 자각하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게 기술발전목표를 높이 세웠다. 그에 기초하여 지금 수만t능력의 수직로건설과 공기분리기의 제작설치 등 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부래산세멘트공장
기사장 윤 영 철

생산에서 편파성을 극복하자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하거나 부닥치는 난관앞에 주저하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지 못한다면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고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에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특히 생산에서 편파성을 극복하는것은 단위앞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지난 기간 우리 련합기업소에서는 년초마다 뽐프와 전동기보수 등 장마철에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고 하지만 현행생산에 급급하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내밀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생산에서 편향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장마철에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 여러 갱이 침수되여 그 갱들에서는 몇달동안 석탄생산계획을 미달하게 되였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장마철에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면서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려는 노력이 점점 희박해지게 되였다.

모든 경제사업이 국가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어느 한 고리, 어느 한 부문만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도 나라의 경제건설전반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에서의 편파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부 일군들이 계획수행을 드티면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저애를 주게 된다는 자각이 없이 조건에 빙자하면서 치밀한 작전과 완강한 집행력을 따라세우지 못한데 있다.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하면서 변화되는 조건에 맞게 적시적으로 작전하지 못한데서도 원인을 찾을수 있다.

생산에서의 편파성은 결코 조건상의 문제가 아니며 극복못할것은 더우기 아니다. 문제는 일군들이 불이 나면 따라가면서 끄는 소방대식일본새와 단호히 결별하고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는데 있다. 그래야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설계하고 치밀하게 조직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갈수 있다.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계획수행을 등한히 하거나 또 월초나 년초에 크게 떠들고 날이 감에 따라 관심을 덜 돌리고 월말이나 년말에 가서 들볶는 식의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단위앞에 맡겨진 계획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이 가지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우리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오늘의 한걸음한걸음이 래일의 밝은 전망을 담보할수 있는 전진보폭으로 이어지도록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계획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겠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기사장 오 현 주

조 국 과 나 의 가 정

중구역 동안2동에 살고있는 성순경전쟁로병이 들려준 이야기

성순경전쟁로병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기증한 공화국기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은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로써 개척한 주체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보다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

얼마전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한 학술연구원으로부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대전해방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전투에서 휘날렸던 공화국기발을 새로 전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 공화국기는 한 가정에서 70여년세월 가보로 물려온것이였다.

우리는 그 기발에 깃든 사연을 알고싶어 중구역 동안2동에 살고있는 성순경전쟁로병의 집을 찾았다.

지나온 수십년세월을 돌이켜보는 성순경전쟁로병의 눈에는 짙은 회억의 빛이 어리였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는 이렇게 이야기의 첫머리를 떼였다.

《그 공화국기발은 저의 남편이 아버지에게서 넘겨받아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휘날려온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늘 그 기발을 보며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았고 자식들이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가르치군 하였습니다.》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전화의 포연을 헤쳐온 전쟁로병 강성익동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우리는 그의 안해인 성순경전쟁로병으로부터 기발에 깃든 사연에 대해 들을수 있었다.

* *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라는 노래소리가 온 조국강산을 진감하던 공화국 창건의 그날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였던 강성익은 아버지가 흰 광목천에 물감을 들여 만든 공화국기발을 처음으로 보았다.

《자, 보아라. 우리 나라 기발이다. 이젠 우리에게도 우리 나라 기발, 공화국기발이 있다.》

마치 온 세상을 다 안은듯 람홍색국기의 기폭에 얼굴을 묻으며 기쁨에 울고웃던 그 모습…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강성익의 아버지 강한필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구상을 높이 받들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였던 반일애국렬사였다. 해방후 자기의 투쟁공적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버지는 농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에 모든것을 바치였다.

그때부터 그의 가정에서는 명절날이면 온 식구가 집마당에 모여 공화국기발을 떠우군하였다. 나라에 바칠 애국미를 싣고 가던 길에서도 강성익의 아버지는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앞장에서 달구지를 몰아갔다.

공화국기발은 그들가정에 있어서 희망과 행복의 상징이였다.

원쑤들은 우리 인민들에게서 그리도 소중한 공화국기발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던 때 강성익은 나이를 불구어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아버지는 그의 품속에 사연깊은 공화국기발을 넣어주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 기발은 설사 목숨이 진다 해도 절대로 원쑤들에게 빼앗겨서는 안된다.》

강성익은 용감하게 싸웠다. 력사에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진 대전해방전투에서도 그는 아버지가 품에 넣어준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싸웠다. 전투에 전투를 거듭하던 나날 《나는 죽어도 이 조국의 강산은 영원무궁하리라! 동무들아, 우리 조국을 길이 지키라!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웨치며 한 목숨바친 전우들의 붉은 피도 그 기발에 슴배였다.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람홍색기발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끝끝내 일어났다.

피로 물들일지언정 결코 내리울수 없었던 공화국기발은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기름진 땅이였고 배움의 종소리 정답게 울리던 학교였으며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사랑하는 내 조국이였고 존엄이였고 승리였다.

전후에 제대된 강성익은 총알자리들이 력력한 공화국기발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그 어떤 훈장이나 표창보다도 귀중한것이였다.

승리자가 되여 돌아온 아들이 소중히 포개여 내놓은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싸움터로 떠나갔던 강성익의 형들중 한명은 전사하였고 한명은 영예군인이 되여 돌아왔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슬퍼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조국을 위해 장한 일을 하였기때문이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조국을 지켜 용감히 싸웠고 공화국기발앞에 떳떳하게 살았기때문이였다. 그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공화국기발을 강성익에게 물려주었다. 자손들이 대대로 그 기발을 물려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칠것을 부탁했다.

강성익은 한생을 나라의 동맥인 철도부문에서 일해오며 아버지의 당부대로 살기 위해 애썼다. 기쁠 때나, 피로울 때나 포연서린 공화국기앞에 마음을 세워보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성실히 일했다.

집을 떠나있는적이 많았던 그는 출장길에서 돌아오면 어김없이 그 기발을 펼쳐보며 조국을 받드는 길에 변함이 없을것을 마음속으로 맹세다지였고 여러번 이사를 갈 때에도 그 기발을 제일먼저 품속에 안고갔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소년단에 입단하고 또 청년동맹원이 되는 날이면 강성익은 어김없이 그 기발앞에서 할아버지세대와 아버지세대가 어떻게 공화국기발을 지켜왔는가를 이야기해주군 하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들인 강무광이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게 되였다. 강성익은 사연깊은 공화국기발을 아들의 품에 넣어주며 당부했다.

《조국이 있고서야 가정의 행복도 있고 너희들의 밝은 앞날도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당부를 안고 강무광은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이어왔다. 훈련의 참기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공화국기발을 펼쳐보며 그 기발앞에 떳떳하게 살리라 맹세를 다지였다.

해방후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날 할아버지가 떠웠던 공화국기발, 전화의 나날 아버지가 높이 휘날렸던 그 기발을 아들이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휘날렸다.

제대후 당의 품속에서 대학을 졸업한 강무광은 청년동맹일군을 거쳐 당일군으로 사업하고있다.

강무광이 제대된 후 그 기발은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강성익의 조카의 아들들에게 전해졌다. 그들도 할아버지세대처럼 살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며 공화국기를 가슴에 품고 조국보위초소를 굳건히 지키였다.

오늘은 사연깊은 공화국기발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성장한 강무광의 딸도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며 앞날의 조국을 빛내일 꿈을 키워가고있다.

두해전 1월 온 나라에 가요 《우리의 국기》가 높이 울려퍼지던 날 강무광의 온 가족은 집안의 가보인 공화국기앞에서 노래를 따라불렀다.

우리의 람홍색기발 창공높이
날릴제
바라보며 높뛰는 심장 애국
의 피로 끓어라
거세찬 펄럭임에 조국의
숨결 어리고
목숨처럼 소중한 기폭에
인민의 운명 실었네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를
나붓겨다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기는 그들의 뇌리에는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느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강성익은 전쟁때 입은 상처가 도져 그만 병석에 눕게 되였다. 명절날이면 살림집창가에 사연깊은 공화국기발을 제손으로 떠우군 하던 아버지였다. 뜻깊은 9월 9일 아침 아버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같지 않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아직도 포연내가 물씬 풍겨오는듯 한 공화국기발을 창문가에 떠웠다.

그 순간 자식들의 귀전에는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들려오는듯싶었고 눈앞에는 애국미를 바치며 공화국기를 휘날리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그 기발을 휘날리며 포연탄우를 헤치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듯싶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폭이 아니였다. 우리 인민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공화국기발은 곧 조국이였다. 그 품에서 모든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았기에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그 품을 지키고 길이 빛내이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다.

* *

장장 70여년세월 4대를 이어 물려온 공화국기발은 한 가정이 걸어온 애국의 자취를 말해주는 증견물이였고 귀중한 가보였다.

바로 그 기발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기증하며 성순경전쟁로병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만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새 세대들에게 전하고싶습니다. 조국이 있고서야 한가정의 행복도 있으며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것보다 더 고귀한 생명, 참된 행복이 없다는것을 말입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되여있는 포연서린 공화국기발을 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
우리가 지켜온 기발 대를
이어 지켜지리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
국기 불멸하리
…

본사기자 유 광 진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늘인다

평 안 북 도 에 서

평안북도에서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고있다. 도에서는 현재 수십만t의 원료를 확보하고 수만t의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흙보산비료생산에 힘을 봉으며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도에서는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유기질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충분히 내도록 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도일군들은 정초부터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확보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하여 도, 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많은 원료를 확보하여 유기질복합비료생산단위들에 보내주었다.

한편 도에서는 시, 군들에서 집짐승배설물과 벼겨, 낟알짚과 같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총화와 평가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경쟁열의를 고조시켰다.

지금 시, 군들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늘이면서 그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지난해농사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신의주시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원가를 줄이면서 실적을 올릴수 있는 앞선 생산방법들을 받아들이고있다.

시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는 작업반별경쟁을 힘있게 벌려 일정계획대로 생산을 밀고나가고있다.

롱천군에서는 군중적운동으로 원료확보사업을 힘있게 내미는 한편 정미소들에서 나오는 벼겨를 모조리 회수하여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 보내주게 하고있다. 이곳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는 벼겨미분분쇄기를 창안도입하여 생산물의 질을 개선해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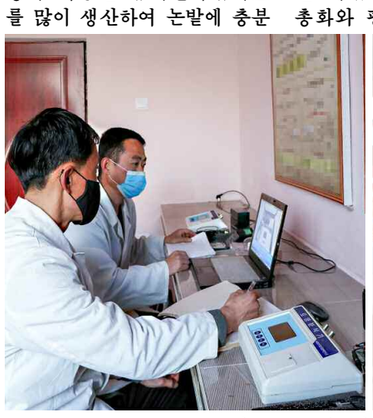
태천군에서도 평북돼지공장 주변에 쿠려놓은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생산을 늘이고있다.

염주군에서는 토착미생물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원가를 낮추고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전력보장에 힘을 넣어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다.

동림군에서는 원료숙성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정주시에서는 많은 과린산석회비료를 공장에 보내주어 유기질복합비료를 보다 질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운산군, 곽산군, 삭주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산잠성의 방도를 찾아내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 명 훈



—염주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감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황 해 북 도 에 서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있다. 며칠전 도에서는 강철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많은 량의 제강원료와 자재들을 마련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며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맏아들공업, 기둥공업인 금속공업발전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강철전선 지원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도급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철전선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다.

사리원방직공장, 은파광산을 비롯한 단위들이 앞장에 섰다.

이 단위들에서는 파철수집사업이 자립의 강철기둥을 더욱 억세게 다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대중속에 깊이 새겨주어 많은 파철을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사리원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황철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는것은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파철수집사업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황주군에서는 일군들이 파철수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려주면서 이 사업에 모두가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중화군, 은파군에서는 파철수집과제를 단위별실정에 맞게 명백히 주고 그 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실적을 올리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성의있는 지원사업에 고무된 황철의 로동계급은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 맹렬한 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정 류 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많은 파철을 보내주고있다.

비상방역진지를 철통같이 다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생방역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바늘끌만 한 틈도 없게

롱천군의 일군들이 물샐틈없는 비상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시달되는 지시와 포치내용을 즉시에 접수하고 즉시에 집행하는 정연한 체계를 보다 튼튼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최대로 각성분발시키고 대중적인 방역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일치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정치사업, 위생선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상방역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며 일군들속에서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과 완만성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있다.

군에서는 비상방역기관의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전파상황에 대처하여 각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초긴장상태를 견지하면서 비상방역사업을 보다 강도높이 전개하고있다.

또한 군에서는 사람들의 래왕이 많은 공공장소들과 상업 및 급양봉사단위들에 해당 성원들과 방역일군력량을 집중배치하고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방역규률위반현상들을 철저히 근절하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비상방역사업의 장기화에 대처하여 방역물자를 충분히 갖추어놓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따라세우고있다.

군일군들은 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보장하는것이 올해의 중요한 과업들중 제1순위라는것을 명심하고 방역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데서 바늘끌만 한 틈도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있다.

보건일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사업은 **황해남도인민병원**에서도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병원당조직에서는 모든 의료일군들이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일선을 지켜선 전초병이라는 숭고한 사명감을 간직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사상사업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일군들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벌려 의료일군들을 더욱 각성분발시키고있다.

세계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전파되고있는 변종비루스의 위험성 등을 반영한 위생선전자료카드들을 과들에 갖추어놓고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병원의 모든 곳이 그대로 선전마당, 교양장소가 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치료실과 의사실 등에 대한 소독과 병원성오물에 대한 처리를 방역규정대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또한 소독수생산설비의 만가동을 철저히 보장하고 매일 소비되는 방역물자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미리 확보하는 등 방역진지를 강화하는데서 사소한 편향도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들도 계속 강구하고있다.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비상방역사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할수 있게 일별, 주별로 학습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강하게 집행해나가고있다.

검병검진에 동원된 의료일군들은 주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방역위기의식을 보다 높여주며 국가가 취하는 비상방역조치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정확히 리행하도록 해설선전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대중의 방역열의를 더욱 높여

청진가방공장의 일군들이 자기 단위 비상방역사업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서고있다.

공장일군들의 사업에서 특징적인것은 종업원대중의 방역의식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 사상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짜고들고있는것이다.

특히 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보장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요강의 첫번째 항목으로 선정한데 기초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켜 그 실효를 높여나가고있다.

공장적으로 매달 비상방역사업정형을 첫자리에 놓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사회주의경쟁총화는 모든 종업원들이 언제나 각성하고 분발하여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또한 어느 한 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그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대중적인 방역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방역열의가 앙양되는데 맞게 소독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일군들과 초급일군들부터가 생산현장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말아가지고 과학적인 소독방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며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정에 맞게 비상방역체계를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탐구도입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오늘날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랑개를 늦춘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이곳 일군들은 대중발동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비상방역사업에서 사소한 공간이나 편향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견성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있다.

김 명

—기상수문국에서— 본사기자 찍음

—신의주시 본부동종합진료소에서— 특파기자 찍음

위훈창조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2직장**의 전력생산자들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날마다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하다면 그 위훈을 이룩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지난 1월 중순 직장의 초급당일군인 권동철동무가 당 제8차대회 대표자로 참가하고 돌아왔다. 초급당일군으로부터 전력생산자들에 대한 우리 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대하여 전해들은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격정과 흥분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그날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에 설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결심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전력증산으로 들끓고있던 어느날 6호보이라에서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랭각수계통에 이상이 생겼던것이다.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전력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대책을 세우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

바로 그때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많은 품이 들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자기들이 맡아하겠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나섰다.

일군들이 이런 때 한몫하라고 우리가 있다고 하자 로동자들은 말했다.

여기는 우리가 설 자리라고, 우리가 전투를 벌리겠으니 일군들은 지휘를 맡아달라고.

결국 현장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전투가 벌어졌다.

조를 뭇고 교대로 전투를 벌리는 일군들과 오랜 기능공, 신입로동자들의 마음속에 간직된것은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자각, 어떤 일이 있어도 전력생산의 동음만은 멈출수 없다는 드팀없는 의지였다.

긴장한 분분초초가 흘러 랭각수공급이 정상화되였을 때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희열과 랑만이 한껏 어리였다.

자기들의 소행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에게 직장일군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리영진아바이를 비롯한 오랜 고급기능공들의 경험과 사심없는 방조가 없었다면, 어려운 작업조건에서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친 로동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위훈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그런가하면 로동자들은 일군들의 이신작칙과 주도세밀한 작전지휘에 의해 이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직장에서 이룩되는 하나하나의 성과들이 과연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던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집단주의위력으로 당의 전투적호소에 오직 전력증산으로 화답해온 전세대 로동계급의 모습그대로였다.

언제인가 밤사이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였다.

보이라운영에서 랭공기가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직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바싹 조이였다. 보이라운영계통들에서 랭공기의 침습을 막지 못한다면 생산이 지장을 받는것은 물론 탄부들이 힘들여 캐낸 석탄이 허실될수 있었다.

물론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공정들에 대한 보온대책을 빈틈없이 세웠지만 운영5작업반원들은 지체없이 작업조를 뭇고 계통들을 깐깐히 점검하며 보온대책을 보강하였다. 이렇게 두몫, 세몫의 일감을 찾아하며 수십개나 되는 랭공기침습개소들을 찾아 대책을 세우면서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지만 교대를 마친 작업반원들은 누구 하나 일터를 선뜻 떠날념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힘이 좀 들더라도 다음교대를 위해 랭공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다 철저히 세워주자는것이 작업반원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고 작업은 교대를 이어 계속되였다.

다음교대성원들은 자기들을 위해 휴식도 미루어가며 일손을 다그치는 운영5작업반원들의 소행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렇듯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기풍은 위훈이 위훈을 낳게 하는 밑불이 되여 직장에서는 련일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자신보다 집단을 위하여, 다음교대를 위하여!

바로 여기에 북창의 전력생산자들이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진군길에 뚜렷한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김경준

류다른 경쟁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압연직장은 2월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류다른 경쟁덕이라고.

하다면 그들이 외우는 류다른 경쟁이란 어떤것이며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어느날 하루작업을 끝낸 압연작업반원들은 작업장정리에 들어갔다. 반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그날 계획도 넘쳐 수행한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일손을 다그치던 그들의 눈길이 무슨 생각인가를 골똘히 하고있는 작업반장에게로 쏠리였다.

무슨 일일가?

영문을 묻는 반원들에게 작업반장은 박판작업반원들이 교대를 마치고 인차 작업에 착수하게 하자면 무엇이 걸리겠는가를 생각하던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 반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판작업반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사업을 해주는것이 아닌가고 하였다.

그랬어도 작업반장의 인상은 좀처럼 펴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그만에야 무릎을 쳤다.

《석탄이요. 박판작업반에서 작업을 하다가 석탄이 떨어지면 더 날라와야 하거던. 그들이 충분히 쓸수 있게 석탄을 우리가 날라다 주는게 어떻소?》

반원들이 일시에 호응했다. 압연작업반원들은 서로의 힘을 합쳐 박판작업반에서 쓸 석탄을 넉넉히 마련해주고서야 작업교대를 진행하였다.

작업장에 쌓여있는 석탄무지를 이윽토록 바라보던 박판작업반장이 압연작업반장에게 물었다.

《이렇게 늘 우릴 도와주다가 경쟁에서 지면 어쩌다?》

압연작업반장은 미소를 지으며 흔연히 응수했다.

걱정할게 있는가고, 우리 작업반에 이런 정황이 생기면 박판작업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라고.

작업장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압연직장의 작업반들사이에는 이렇듯 경쟁을 해도 도와주는 경쟁, 떠밀어주는 경쟁을 하고있는것이다.

이런 류다른 경쟁속에 직장에는 서로 돕고 위해주는 뜨거운 정이 공기처럼 차넘치고 그것이 그대로 더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서로 위해주는 마음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종업원의 가정에 앓는 환자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수십리 밤길을 달려가 회복에 좋은 약재들을 마련해온 직장장이며 온 직장이 집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종업원을 위해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는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배워주고 뒤떨어진 사람은 이끌어주며 힘들어하는 사람은 도와주면서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보폭을 큼직큼직하게 짚어가는 압연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비록 류다른 경쟁속에 작업반들사이에 승부를 가르기는 어려워도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그들의 발구름소리는 언제나 기백있고 우렁찰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공장이 자랑하는 기능공작업반

구장세멘트공장 완성직장 수리작업반을 두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능공작업반, 보배집단이라고 부르고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수리작업반의 인원은 몇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한명한명이 다 한다하는 기능을 소유한 로동자들이다. 그러다나니 애칭도 많았다.

기계박사, 전기박사, 용접의 능수…

설비들의 속내를 환히 꿰들고있는 작업반원들은 직장은 물론 공장적으로 제기되는 설비보수까지 막힘없이 척척 해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이 가장 신성하고 보람있는것으로 되고있으며 로동에 대한 성실성은 우리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품성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지난해말 작업반장 지영호동무를 비롯한 이곳 수리작업반원들은 새해전투를 앞두고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 3호분쇄기의 제진장치를 새롭게 훌륭히 완성한데 이어 공기수송뽐프도 새로 제작설치함으로써 생산한 세멘트를 저장탕크까지 원활하게 운반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성과는 공장이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세멘트증산에서 첫걸음부터 위훈의 큰 보폭을 내짚게 한 소중한 열매였다.

허나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수리작업반원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욱 바싹 조여매고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분발하였다.

지난 1월 중순 직장의 어느 한 설비가 이상이 생겨 가동을 멈추었다. 일군들과 수리작업반원들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설비의 요소요소를 깐깐히 살펴보던 작업반장이 즉시 원인을 찾아냈다. 한 부분품의 균형이 파괴되였던것이다. 그것을 해체하여 가공하자면 적어도 옹근 하루라는 시간이 걸려야 하였다.

모두의 생각은 깊었다. 그렇게 되면 하루라는 시간을 잃게 되고 첫달생산계획수행에도 영향을 줄수 있었다. 수리작업반원들은 그것을 허용할수 없었다.

이때 수리작업반의 두원익, 주원복동무가 수리를 자기들에게 맡겨줄것을 제기하였다. 그들을 바라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며칠전 1호분쇄기의 대형감속기가 뜻밖에 멈춰섰을 때 이틀밤을 꼬박 밝히다싶이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받아들여 감속기의 가동률을 높인 그들이였다.

그런데 피곤도 미처 풀지 못한 그들이 또다시 어려운 일감을 스스로 맡아나서는것이 아닌가.

자기들을 걱정하는 일군들의 마음을 읽은듯 그들은 이런 때 한몫하라고 우리 수리작업반이 있는것이 아닌가고 웃으며 말하고는 작업에 달라붙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켜보는 속에 긴장한 시간이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부분품의 균형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발한 착상을 도입한 수리는 4시간만에 드디여 끝났다.

사람들이 다시 기운차게 돌아가는 설비를 바라보며 기쁨을 금치 못할 때 수리작업반원들은 이미 진행중에 있던 기중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조작업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역시 기능공작업반이 다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기능공작업반, 여기에는 세멘트생산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고있는 류국철, 김창주, 윤만성동무를 비롯한 수리작업반원들에 대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평가가 비껴있었다.

집단의 사랑과 기대가 담긴 이 부름을 올해의 진군길에서 세멘트증산의 동음으로 더욱 빛내이려는것이 이곳 작업반원들의 하나의 마음이다.

본사기자 김진욱

소중한 지향을 안고

얼마전 깊은 골안에 자리잡고있는 **김화군 탑거고급중학교 매회분교**로 한대의 자동차가 들어섰다.

그 자동차에는 분교개건에 쓰일 목재들이 실려있었다.

이윽고 목재들을 다 부리우고난 한 녀성이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분교앞에 쌓인 건설자재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바로 분교의 교원인 리정숙동무이다.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분교를 보란듯이 개건하여 더 좋은 교육조건을 마련할 목표를 세운 그는 교직원들의 앞장에서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벌리고있는것이다.

내가 키우는 학생들모두를 나라를 떠메고나갈 기둥감들로 키우리라.

이것이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갈 일념 안고 수십년전 이곳 분교에 자진하여 달려온 때나, 귀밑머리 희여지기 시작한 오늘에나 그의 가슴속에 변함없이 간직된 소중한 지향이다.

그 지향을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던 나날에는 어려운 수학문제풀이를 학생들 누구나 리해하기 쉽게 설명해줄수 있는 묘리를 찾아 한밤을 지새우며 사색을 이어나가던 날도 있었고 몸이 불편해하는 학생을 등에 업고 찬눈길을 헤치며 등교길을 오가던 날도 있었다.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나라의 영웅이 되고 혁신자가 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면 그의 가슴속에는 교육자된 긍지가 가득차오르군 하였다.

10월8일모범교수자인 리정숙동무는 오늘도 교육자로서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를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마음 안고 맡은 교육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건일

꾸바주석 력사교육의 중요성 강조

꾸바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가 2월 23일 교원들과의 담화석상에서 력사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혁명을 수호하고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새 세대들에게 지나온 력사를 알려주는것이 매우 관건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말하였다.

만일 청년들이 력사를 모르고 현시기 꾸바가 겪고있는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나라도 수호할수 없고 혁명도 지켜낼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집짐승전염병피해

남아프리카의 서부케이프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2월 26일 정부는 주에 있는 2개의 목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들중 약 5%가 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고기의 수송 및 판매가 금지되였으며 전염병의 확산정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원인모르게 죽은 돼지들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할것을 권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형조류독감환자 발생

로씨야의 남부지역에 있는 한 가금공장에서 최근 7명의 신형조류독감환자가 발생하였다.

2월 20일 로씨야련방소비자권리보호 및 인간복리감독국 국장은 가금공장 종업원들이 A(H5N8)형조류독감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이 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그는 A(H5N8)형조류독감비루스가 조류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될수 있다는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현재 이 비루스는 사람들사이에 전파되지 않고있다고 말하였다.

탄저병전파방지사업

부르끼나 파쏘정부가 최근 탄저병전파를 막기 위한 왁찐공급사업을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들에 4 000회분의 탄저병왁찐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난 1월 이 나라의 서남부지역에서 탄저병이 발생하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산분출

인도네시아의 쟈바섬에서 2월 19일 메라피화산이 분출하였다. 용암이 뿜어져나와 1 000m 되는 곳까지 흘러내렸으며 짙은 연기가 수백m높이까지 솟구쳐올랐다.

앞서 18일에도 그곳에서 화산분출이 있었는데 용암은 먼곳까지 흘러갔다. 이와 관련하여 분화구로부터 반경 5km구간이 위험지대로 선포되였으며 일체 통행과 주변지역 강들에서의 채취작업이 금지되였다.

한편 북부쑤마뜨라주에서 25일 씨나붕화산이 분출하였다. 분화구로부터 화산재가 1 500m높이까지 뿜어져 올랐다고 한다. 화산관측소는 분출이 약 3분동안 지속되였다고 밝혔다.

살인범죄

썩고 병든 사회 일본에서 살인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최근 후꾸오까현의 한 아빠트에서 9살 난 어린이가 죽은채로 발견되였다.

가고시마현에서도 2구의 어린이시체가 발견되여 경악을 자아냈다.

후꾸시마현에 있는 자동차판매소에서는 한 남성이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조선중앙통신】

확대되고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피해, 그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세계적으로 1억 1 466만 9 600여명 감염, 254만 2 560여명 사망

외신보도에 의하면 2월 28일 24시현재 세계적으로 1억 1 466만 9 689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고 254만 2 569명이 사망하였다.

9 022만 466명이 완치되고 2 190만 6 654명이 치료를 받고있다.

이날 하루동안에 30만 1 133명의 감염자와 5 80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아시아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증가

아시아에서 2월 28일현재 2 500만 4 501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고 39만 8 32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동안에 6만 8 000여명의 감염자와 7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인디아의 감염자는 1 111만 2 056명, 사망자는 15만 7 195명이다.

이란에서 지난 24시간동안에 8 010명이 감염되고 93명이 사망하였다. 전국적인 감염자수는 163만 1 160여명, 사망자수는 6만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133만 4 634명의 감염자와 3만 6 166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였다.

전날에 비해 감염자는 5 560명, 사망자는 185명 늘어났다.

필리핀에서 하루사이에 2 113명이 감염되고 29명이 사망하여 그 수는 각각 57만 6 300여명, 1만 2 310여명에 달하였다.

레바논에서 37만 5 033명, 말레이시아에서 30만 752명이 감염자로 확진되였다.

일본에서 감염자수가 전날에 비해 999명 늘어나 43만 3 432명에 이르렀으며 그중 7 910명이 사망하였다.

중국에서 19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페염환자로 새로 확진되였다.

전국적으로 4 715명이 의학적관찰을 받고있다.

한편 남조선에서 하루동안에 355명이 감염되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총감염자수는 9만여명, 사망자수는 1 6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유럽에서 감염자 3 414만 7 100여명, 사망자 81만 3 200여명

유럽에서 2월 28일현재 3 414만 7 132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고 81만 3 207명이 사망하였다.

하루동안에 11만 6 80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로씨야의 감염자수는 424만 6 079명, 사망자수는 8만 6 122명에 달하였다.

지난 24시간동안에 1만 1 359명이 감염되고 379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에서 6 035명이 새로 감염되여 그 수는 417만 6 554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수는 12만 2 849명으로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 375만 5 968명의 감염자와 8만 6 454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였다.

뽀르뚜갈에서 80만 4 562명, 로므니아에서 80만 1 994명이 감염자로 확진되였다.

아메리카지역에서 악성전염병 계속 전파

북아메리카에서 2월 28일현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수가 3 355만 7 537명, 사망자수는 75만 9 441명에 달하였다.

남아메리카에서 1 798만 4 871명의 감염자와 46만 6 641명의 사망자가 났다.

미국에서 2 925만 1 710명이 감염되고 52만 5 808명이 사망하였다.

브라질의 감염자는 1 055만 1 259명, 사망자는 25만 5 018명이다.

아르헨띠나에서 3 168명이 새로 감염되여 그 수가 210만 7 365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는 5만 1 965명이다.

이 나라 정부는 사람들사이의 접촉제한과 마스크착용을 비롯한 방역조치를 12일까지 연장하였다.

칠레에서 82만 5 625명이 감염되고 2만 572명이 목숨을 잃었다.

꾸바에서 4만 9 779명의 감염자와 322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였다.

아프리카에서의 대류행전염병전파상황

아프리카에서 2월 28일현재 392만 3 766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고 10만 3 857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동안에 8 500여명의 감염자와 210여명의 사망자가 났다.

남아프리카에서 감염자수가 151만 3 393명, 사망자수가 4만 9 993명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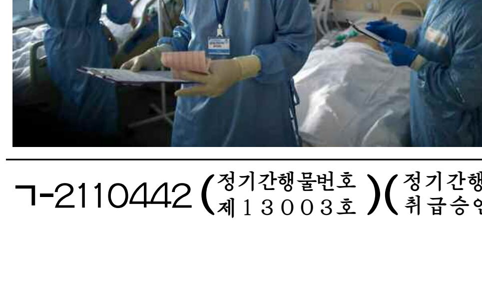
마로끄에서 244명이 새로 감염되고 8명이 사망하여 그 수는 각각 48만 3 654명, 8 623명으로 증가하였다.

짐바브웨에서 3만 6 054명의 감염자와 1 4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남부수단에서 7 926명이 감염자로 확진되였으며 그중 93명이 사망하였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현재 실시되고있는 부분적인 봉쇄조치를 1개월 연장할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211044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